

## 移民文學論(Ⅱ)

—朴啓周의 作品을 中心으로—

吳 養 鑄

<目 次>

I. 序 論	(2) 非人間主義의 演進
II. 本 論	(3) 哀傷的 母性回歸
(1) 象徵의 問題	III. 結 論

### I. 序 論

1940年代에 있어서 朝鮮農民文學의 根本的인 課題는 作家自身이 農村을 알고, 農民의 流浪, 破產, 負債, 農耕, 穀分打租 등의 朝鮮의인 諸特質을 闡明하는 것이 그 과제의 하나로 지적되었다<sup>1)</sup>. 그리고 특히 이러한 문제는 이때 많은 우리민족이 間島등지로 流浪의 길을 떠나게 됨으로써 滿洲에 있어서의 우리민족의 生活史는 중요한 明日의 文學으로 제시되었으며<sup>2)</sup> 이러한 제시는 실제 관심있는 作家들에 의해 진지하게 받아 들여졌다<sup>3)</sup>.

이런 관점에서 曙雲 朴啓周는 論議의 한 대상이 될 수 있는 作家다. 1940年代에 있어서의 이런 流浪 移民의 문제는 이미 필자가 논의한 바 있고 아직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sup>4)</sup>.

박계주는 1929년 間島日報 新春文藝에 「赤貧」이 佳作으로 入選되어 文學活動을 시작하게 되어 1966년 作故하기까지 많은 作品을 남겼다.

1) 印貞植: 朝鮮農民文學의 根本的 課題(人文評論: 1939. 12월호 p. 19참고)

2) 玄卿駿: 文學風土記(間島篇)(人文評論: 1940. 6월호) p. 84

3) 李・永: 滿洲外 農民文學(人文評論: 1939. 11월호) pp. 20~22

4) 本誌三號 安壽吉論 및 巴人, 青馬의 初期詩가 이런 一面에서 논의될 수 있다

특히 그의 大衆的인 藝術의 재능으로 해서 「殉愛譜」같은 作品은 48版을 내는<sup>5)</sup> 경이적인 출판기록을 세웠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의 作品에 대한 文學研究는 진지하게 開進된 바 없다. 이와 같은 사실의 근처에는 이미 어쩔 수 없이 굳어진 曙雲의 作品들에 대한 先入見이 作用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柳寬順의一生을 作品化하고 (「殉國의 少女」), 獨立軍의 光復運動을 문제삼고 (「青山里싸움」「無名志士의 最後」 등), 日帝 총독부의 作品 검열에 發表中止를 당하는 (「處女地」「愛情無限」) 등의 前期文學(8. 15이전에서 그의 作家意識의 性向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近代的自我에 눈 뜬 이래 우리의 民族的自我에 바탕이 되는 意識의 形成과 人生의 확립을 도색했던 前代 이데오로기의 持續現象이다. 특히 1940年代는 日帝의 단말마적인 軍國意志가 完全히 民族의인 것을 말살하고 大東亞共榮圈建設에 헐안이 되었던 시기다. 이로 인해 民族意志는 完全히 폐쇄당하고 좌절과 자학적 증세, 또는 事實受理論으로 등분되던 때다. 이런 상황에 광막한 만주벌 개척이민의 生活史를 집단적 자아로 부조하려는 작가의식은 우리에게 새로운 열린 세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암시로 해석할 수 있다. 이것은 「處女地」(\*41) 「死刑囚」(\*42) 「肉票」(\*43) 「어머니」(\*43) 「딸따리 죽」(\*43) (「無名志士의 最後」로 後에 改題) 「母土」 등에 나타나는 象徵, 開拓精神, 現實告發, 民族意志 등의 問題에서 추출의 가능성을 발견한다.

이러한 問題들은 他作家와 持續的 연관성을 지니면서 (崔曙海 등) 또 한편으로는 移民地帶의 새로운 民族更生의 活路를 찾으려는 意志의 表出이라는 점에서 同類項으로도 볼여진다<sup>6)</sup>. 곧 암담한 時代를 살아 가려는 強한生命力이 現實固着의 安日性을 넘어서 새로운 意志로 表現되는 面에서 民族文學의 전재함과 日政下 文學史를 再定立 할 좌표를 찾아내고 소위 暗黑期의 文學史를 補完할 새로운 章을 시사 한다.

本稿에서 論議의 대상으로 삼은 作品은 그의 作品中에서 代表作으로 인정되어 韓國文學全集<sup>6)</sup>類에 수록된 作品들 대상으로 하였고, 作品의 發表年代를 굳이 1940~1945년(前期文學) 사이로 한 것은 本稿가 文學史的 慎(暗黑期)을 비교적 強하게 의식한 結果이다.

4) 趙靈岩 : 韓國代表作家傳(廣文社 1958)p.133 또 단행본으로 출판된 1940년 한해동안에 딘 15판을 냈(崔洪奎 : 十字家の 倫理와 因果律 : 三省文庫別卷, p. 150 참고)

5) 拙稿 : 移民文學論 I (安壽吉論) 참고

6) 語文閣의 新韓國文學全集('75年版) 및 文元閣의 韓國短篇文學全集('74年版)에 수록된 作品中에서 필자가 適意 선택함.

## II. 本 論

### 1) 象徵의 問題

文學作品을 바라보는 觀點의 차이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염밀히 區別하기란 어렵지만, 文學史的인 의의가 보다 중요한 作家가 있는가 하면, 그런 것과는 무관하게 한 作家의 作品 속에서 그 作家의 文學의 가치를 발견해 볼수 밖에 없는 경우가 있다. 朴啓周의 경우는 지금까지 이 양자가 다 무시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주지하듯이 우리나라가 1940년대로 들어설 자음은 소위 言論, 出版, 集會, 結社 등 摄載制限令(1941), 新聞事業令(1941), 出版事業令(1941) 등 日帝가 우리의 文化藝術을 말살하려는 의도가 극단적인 단계에 가 있었던 시기다. 이러한 풍토로 인하여 우리 문학은 기형적인 성장을 면하지 못했다. 곧 당시의 小說家나 詩人들은 대부분 내면으로는 反日意識을 견지하면서도 겉으로는 現實體制에 영합하는 二重的 처세를 취했다. 점연의 質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우회적인 방법으로 역사적 소재나 民俗의in 題材를 택해 고도의 상징이나 비유법에 의해 民族意識을 고취하는 작품구조의 양면화를 지향했던 것이다<sup>7)</sup>. 金廷漢의 「寺下村」「秋山堂과 결사람들」<sup>8)</sup> 그리고 이태준의 「밥질」 등은 이런 유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朴啓周의 경우는 現實體制에 영합한 二重的 處世나 現實固着의 右派의 태도등은 별로 눈에 띠지 않고, 오히려 칙설적이고 노골적인 修辭로 현실의 부조리성을 고발하기도 한다.

「네 국적이 조선에 있어서 황국신민(皇國臣民), 이를테면 일본사람이 됐느냐, 그렇잖으면 만주국에 입적해서 만주국 백성이 됐느냐 말이다」하고 성을 펼쳐 내며 묻는다.

「나는 조선사람이요.」

「이놈아, 조선사람인줄 누가 보는데?」

그는 다시 깔깔 웃는다.

「그럼 왜 조선사람인줄 알면서 나보구 일본사람이냐 만주국 사람이냐 하구 뭔소? ...중략...」

「그럼 너는 일본 백성이 아니란 말이냐?」

7) 李明帝: 檢閱이 新文學에 끼친 影響(동아일보 1975. 3. 27(木))

8) 淘稿: 現實과 散文精神(語文學33) 참고

「내가 왜 일본 사람이란 말이요? 이렇게 조선옷티로 입구 조선말으 하는데…」  
 (『處女地』一節)

이것은 장백산 연봉 너머 원시림 속에서 통나무 집에 살면서 숲을 굽고 할지박을 깎고, 짐승을 잡아먹으며 원시인 생활을 하는 조선 사람이 소유권 침해, 절도죄 등의 죄명을 쓰고 산림 간두에게 이끌려 경찰서에 가 문초를 하는 경관에게 하는 소리다. 皇國 厥民도 단주국사람도 아닌 조선사람임을 주장하는 이 산사람은 결국 이들 문명국의 경찰관으로부터 非國民의 죄목을 쓰고 유치장 신세를 지게된다. 그러나 원시인의 아카타앞을 뛴 이 주인공의 비판의식은 당대 우리 移民의 어떤 지식계층보다 날카로운 각도에서 식민지민이 당하는 부당한 압제 문제를 제시한다. 몇개의 예를 더 들어보자.

- 「정직한 고백을 한다고 해서 때린다면 거짓말을 해야 맞는 일없이 잘 살아갈 처세의 방도가 될 것인가.
- 말하면 탈끌마다 타박이요, 말 안하자면 안한다고 타박이니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할지 정신차리기가 곤란했다.
- 「나으리」는 또 무슨 놈의 나오릴꼬. 그게 다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의 소치라 생각하니 세상엔 모두 정신 명자만 사는 것 같아서 세상이 우울해졌다.
- 그는 그날 밤에, 비적(침략자 일본에게 비적(匪賊)일지 몰라도 기실은 비적이 아니라 반만군(反滿軍)의 계릴라 부대인 것이다)을 잡으면……

이러한 문예은 一見 설화자가 작가에 의하여 창조된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작가 자신이라는 인상을 줄으로써 客觀的 觀點의 성격을 흐리게는 하고 있다. 그러나, 小說 속의 論評的 辭說, 즉 作家의 개입은 예술 영역에서 除外시킬 필요가 없다는(토마스·マン) 입장에서 본다면 작가와 독립된 개체를 창조하지 못했다는 약점은 물허버린다. 이런 점에서 이러한 작품은 「어머니」등에 나타나는 주제의식과 함께 강렬한 현실비판적 입장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러나, 당대 사회정세의 긴박성으로 인함인지 主人公은 바보같은 원시인 형태로 회화되고 있다. 이것은 朴啓周文學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영역, 상징화된 이념의 세계다. 그렇다면 박제주 문학이 이러한 특성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었던 편연성은 무엇인가. 주지하듯이 日帝는 1932년부터 해방되기까지 한국인을 정책적으

로 만주로 이주시기 가 시작했다<sup>9)</sup>. 그러나 그 앞서부터 한국인을 排日運動의 일환으로 압박하고 있던 중국 측은 설사 滿洲國의 전설로(1932. 3. 1) 한국인에 대한 악감이 정치적으로 완화될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하지만 원래 일제가 한국인을 중국에 귀화시켜 일제의 자금으로 토지를 매수시킴으로서 한국인에 대해 가지고 있던 나쁜 감정은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없었다. 따라서 재만한인은 중국인과의 갈등으로, 정치적으로는 만주국 국민이면서도 십리적으로는 만주국민이 아니고, 日帝의 한반도 정책에 의해 끊겨난 사람들이 고보니 皇國臣民도 아니다. 이런 풍토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도는 無人境의 처녀지에서 원시적 생활을 하거나 바보처럼 그들 친일파나 만주 원주민의 박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처녀지」의 주인공 산사람이 바로 이런 인물의 성격을 띠운다. 와전히 인간세계와 결연된 처녀지 속에서 근대문명과는 접해본 일이 없는 이 주인공은 원시인의 종모를 떤 바보다. 그러기에 서슬이 퍼런 일제 괴현에 대해서 「황국신민」도 아니요 만주국민도 아니라고 호언할 수 있다. 이러한 작품의 배경과 인간형의 창조는 강한 작자의 우회된 상징미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靜謐한 長白山連峰을 앞으로 쳐다보며 해안강의 군원을 찾아 어절嶺을 넘어 原生林이 바다를 이룬 처녀지, 그 무인경에 한 조선사람이 산다는 것은 경이』란 도입부의 배경설명부터가 그렇다. 간간이 馬賊의 출몰이 있는 외에는 인적이라곤 없는 산속, 「밀림이 소름 끼치도록 무섭게 채趺대로 무성한』처녀지에서 살림킬도가 부설되면서 이 산사람을 몰아내려들자 이 산사람은 새로운 생활근거지를 찾아야 하는 입장이 된다. 극대문명과는 거리가 아주 먼, 원시인과도 같은 이 주인공은 日人 경찰이 非國民이라고 호통을 치자 비국민이 뭐냐고 되묻는 그런 숙덕이다. 주인공의 이러한 면모는 표면적 주제와는 다른 二面性을 지닌다. 마치 金廷漢의 「秋山堂과 절사람들」에 나타나는 주인공 秋山堂이 其實 위장된 배역으로 40년대의 음흉하고 속악한 착취자를 상징한바면, 처녀지 속에서 살아가는 이 순수한 自然인 조선사람은 일제의 허울 좋은 산업정책이 사실은 개척민의 부지둔제와는 얼마나 상거된 처사이가를 아니라지 한 상관들인 것이다.

이러한 生活속에서 태어난 間島의 朝鮮文學은 當代에도 하나의 상징

9) 朴永錫：日帝下 在滿韓人의 追害實態와 國內反應：建大新聞 1976. 9. 1(水)

적 경향으로 평가되었다. 玄卿駿은 間島篇文學風土記에서

「民聲報時代로부터 「北鄉」에 이르기까지 朝鮮流民의 가지각색 喜悲劇을 노래하고 또는 노래하려고 애쓴 그作品들 속에서 우리는 歷歷히 今日의 상정을 엿볼 수가 있다…」<sup>10)</sup>

고 기술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다음과 같은 문구는 失鄉農民의 문제 가 우회적 입장을 취해서 착취자에 대한 조명이 대담한 수준에서 논의 된 예가 된다. 이것은 社會現象의 단순한 관찰자로서가 아니라 現實 社會의 生活로부터 조금도 離反되지 않는 투철한 리얼리스트 정신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작가의식을 증명하는 것이다.

「허어? 이사람이 정말 미쳤구만. 그래두 제사 뵈비(도루)나르 미쳤다구 하니 실루 내사 우뿌당이!」

산사람은 쓴 웃음을 머금으며 갑자기 웃다가 갑자기 성을 내는 이사람 역시 그 전 측량대원처럼 정신이 평상 상태가 아닌것을 속으로 불쌍하게 여겼다.

그러나 감독은 감독대로

「참 불쌍한 인간이로군!」

하고, 쓴 웃음을 머금으며 산사람을 불쌍히 여긴다.

「무시기오! 나르뵈비사나(도리어) 불쌍하다구요? 나는 정신이 불쌍하다구요 나는 당신이 불쌍합꼬마!」<sup>11)</sup>

이렇게 대들다가 산사람은 伐木人夫監督에게 뺨을 얹어 맞는다. 그러나 그는 끝내 나무를 베어 솟을 구워팔며, 치녀림 속에서 살아가는 자기에게 그것을 못하게하는 산림감독이나, 측량기사가 미쳤다는 생각을 버리지 못한다. 그러나, 순박하면서도 原初的인 인간의 정직성을 잃지 않은 이 산사람은 인간이 그 순박한 본성을 잃고 날로 개발되면서 아름다운 천연의 생활근거지에서 쫓겨나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사실 이 작품의 표면적 주제다. 반면에 이 작가가 나타내고자 한 은밀한 주제는 다음의 인용문이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日帝가 대륙 침략의 근간으로 산았던 철도부설이 얼마나 在滿 韓國移民들의 의사와는 거리가 먼 무서운 침략근성과 노동력의 착취였던가를 비판하려는 의도였던가를 검증하려 했던 것 같다.

10) 玄卿駿：文學風土記(人文評論 1940. 6월호) p. 18

11) 박계주：處女地(現代韓國短篇文學全集 文元閣 A—22) p. 230

「이 산림철도 부설은 일본의 괴뢰정부인 만주국 주동아래 봉천에 있는 사까끼 야구미(神父組)가 말아서 열하성(熱河省)에서 대부대의 쿠울리(若力)을 강제로 겁(일급 월십전을 준다고 선전하고 모집하였으니 어찌면 강제모집이 아닐뿐지 도 모르지만, 별 있는 새벽부터 별이 다시 드는 어두운 저녁까지 가혹한 노역을 시키기를 무려 일개년, 최하 십육세로부터 최상 육십세까지의 쿠울리들은 옷벼금도 없어 엄한에 쓰러지며 노역했으나 공사가 끝난뒤에는 등전 한푼도 주지 않고 고향으로 둘려보냈던 것이다. 그리고 공사 도중에 가혹한 노역과 추움과 굶주림에 견디지 못하여 탈출하는 자는 일본군 경비대가 현장에서 총살에 처했던 것이다)하여 공사를 완성시켰지만<sup>12)</sup>.....

이러한 지문에서 민족이 뿌리뽑히고 수탈되어 가는 형국을 비판하려는 분명한 작가의식을 발견한다. 곧 移住民의 生活現象, 그리고 新開地에서 다시 혹사당하면서 삶을 영위해야 하는 비극적인 移民들의 의식 상태가 一回的인 現場性을 벗어나 밀려난 민족현실이 하나의 縮圖를 띠고 重畳的 의미로 양서되고 있다. 그리고, 논희선적인 주제의 형상화가 작품의 문맥을 이르고 있어, 소설 본래의 사명, 즉 人生에 있어서의 경험을 複하고 代理的 인생살이를 호흡해볼 수 있는 文學的 기능을 발휘한다. 그와 함께 평범하고 수동적인 식민지 신민으로 전락해 가는 것이 아닌 현실비판적 색채를 띤 文脈은 時代의 문제성에 주의를 집중시키려는 의도로 예각화되고 있다. 이것은 日帝의 허용 좋은 產業化 政策이 얼마나 많은 韓國民의 희생위에 이루어 졌는가를 해명해주는 의도로 해석된다. 부연되지만 作家의 이러한 비판의식이 작품으로 형상화 되는대는 많은 시대적 제약을 받았기에 作中 主人公의 性格은 僞裝된 제스처나 人間的 時代意識을 상실한 原時的 人間型으로 나타난다. 곧 주인공 산 사람은 人間의 원시인적 어리석음과 자연 그대로의 세계를 人間本然의 세계로 인식하고 새로운 개화를 인간적 행복의 방해물로 받아들이는 人物이다. 그러기에 이러한主人公의 우직성이나 愚行이 보편성에서 전도되고, 이탈 될수록 그들 문명인들에겐(日帝의 官吏) 조롱이나 냉소의 대상밖에 될 수 없다. 그러나, 이 외면적인 조롱이나 냉소가 우리에게 悔蔑과 험오감을 주는 것이 아니고, 민족적인 감정과 원초적 인간미를 상기시킨다. 그것은 이 모멸의 대상자가 「조선사람」이요, 다음과 같은 문맥이 작품의 主調로 이끌려가기 때문이다.

12) 박계주 : 저녀지, 現代韓國短篇文學全集 (文元閣 A-22) p. 228

13) 박계주 : Ibid. p. 236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저렇게 쉽게, 저렇게 모두, 저렇게 가볍게 미쳤을까. 그것은 먹기 위해서가 아닌가. 먹기 위해서라는 말은 결국 「나」를 위해서란 말이 아닌가. 「나」를 위한다면 사람들은 웬 「나」를 미치게 할까. 「나를」위하는 것으로 인해서 「나」를 파괴한다면 「나」를 부정하는데서 인간은 비로소 「나」를 전설하게 될 것인가… 그리고 토니 이 처녀지에 문명이 첫 함성을 치던 그날부터 쫓겨가버린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그리워진다<sup>13)</sup>.

이렇게 볼 때 이 주인공이 바라는 원시적인 환경에의 등정이나, 개인의 이기주의화에 대한 타매는 더 큰 重層의 의미를 지닌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이들 작품이 쓰여진 1940년대에 약소민족의 후예로서 당하던 뼈저린 고난, 그러면서도 그 역사와 사회가 작가에게 부과하고 있는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의식하면서 살았던 소설가를 이해한다. 그리고 그것을 작품화할 의무 속에 살면서도 당시의 상황은 그 실천이 불가능했다는 사실도 이해한다. 이러한 조건이 바로 이 시기에 있어서 산문의 상징화시대를 열게 했고 박제주의 경우에 있어서는 원시인의 아카타입을 뛴 희화된 인물의 창조란 형태로 나타났다. 이런 점에서 박제주의 「처녀지」는 대체로 전체의 이미지가 민족의 수난을 벗어나려는 의지와 개인생활의 어려움을 상징화하는데 집중되고 있고 작품 속의 주인공의 성격은 또한 그러한 고뇌를 벗어나려는 희화된 인물로 허울좋은 산업화가 其實 식민지민에게 한갓 狂態로 받아들여지는 非常識의 인물로 창조되고 말았다.

## (2) 非人間主義의 검증

朴啓周의 「死刑囚」는 이론바 양드레·지드가 말하는 文化는 삶에서 태어나서 삶을 죽인다는 論理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러기에主人公 王德은 모든 道德的, 知的, 獨斷主義를 내어던지고, 도처에서 公式的인 傳統과 精神을 거부하고 生의 自然性을 부르짖는다, 그에게 있어서는 直感의 愛憎, 慾望, 살아있는 육체의 발견 등을 통해서 그러한 自然의 生을 啓示로 받아 들인다.

「죽음은 다른 생명의 허가에 지나지 않는다」—양드레 지드.

「나는 죽지 않으므로 죽는다」—T.D 헤수스.

이런 말을 서두에 달고 있는 이 작품은 이론바 지이드가 神이나 理性이 人間의 生存理由를 밝혀 줄 수 없게 되자, 인간으로 하여금 스스

13) 박제주 : Ibid. p. 236

로 그 존재를 시인케 하는 生의 情熱을<sup>14)</sup> 환기시키는 작품이다. 다시 말해서

「死刑囚」는 인간의 삶이나 죽음이 어떤 인간들에게 얼마나 비정하고, 다른 어떤 인간에게 얼마나 두렵고 엄숙한 것인가를 보여주려는 작품이다. 여진족의 후손인 王德은 야만성적 인간의 힘을 가진 인물로 마적의 두목으로는 드물게 보는 인테리다(어려서 집을 뛰쳐나와 고학으로 공부를 했다) 그러나, 오랑캐(兀良哈)의 후예라는 혈통의 차별로 번번이 야먼(衙門)에 등용되지 못하여, 이것에 대한 반감이 本能的 저항성으로 형성되어 마적단에 가담, 십년을 하루같이 안도현오지(安圖縣奥地)인 장벽산맥을 무대로 판가에 나타나 약탈과 방화와 살해를 일삼아온 인물이다. 이 人物은 사형을 당한다는 사실에 크게 공포를 나타내지 않는다. 그래서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수레에서도 끝까지 자제력을 잃지 않고 몇몇하고 오만한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고 오히려 차기를 반역으로 몰아 호송해 가는 호송원을 조롱한다. 이와 반면에 王德과는 다른 수레에 탄(두번째 수레) 마적은 사형장으로 끌려가면서 호송원에게 자기의 무죄함을 호소하면서 살려 줄것을 애원한다. 그리고 시가지를 지날 때 군중들을 향해 자기의 결백함을 호소하고 맛있는 음식을 양껏 청해서 먹으며(이지방 풍속은 사형수가 거리를 지날때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은 뭐든지 청해 먹을 수 있다) 끝까지 비굴을 벗어나지 못한다. 이런 두개의 인간형은 死나 生에 대한 평범한 해석으로 하나의 인간성을 창조하지 못했다<sup>15)</sup>는 당시 평가와는 달리 작가가 전문에서 전제한 명제가 하나는 王德의 人間型으로 다른 하나는 후자의 人間형으로 형상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이 작품의 주인공이면서 동시에 叙述者로서의 二重存在인 王德은 生이나 死에 대한 자기나름의 사상을 가진 인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를 테면 다음과 같은 예문을 보자.

그는 교회사의 이러한 말도 들추어 냈다.

「죽음은 육체로부터 본질적인 「나」를 해방시키는 사변(事變)이다」 하던것을 그리고 「시간」안에 있던 존재가 「영원」에 직면하는 때 거기에 죽음을 통과하는 사실이 있다하던 말도 속으로 뇌어본다.

—죽음?

—내세?

14) R.M Albéres: L'Aventure Intellectuelle du XXe Siecle 1900~1959(1959)  
鄭明煥역 p.5

15) 金·天: 秋收期의 作壇(文章 2권9호) p.14

—영혼?

없다. 없다. 그는 머리를 설레 설레 혼들며 이렇게 부정해 버린다. 죽으면 그만 아니라. 물질, 그렇다. 물질로 된 인간은 물질로 돌아가고 마는 것이다.  
「그런데 본질적인 「나」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물질 아닌 나? 그 「나」는」「—물질과 함께 소멸될 것이다. 어디로?」

…중략…

—태내는 한 세계다. 달걀의 파괴는 신생에의 제일보다 파괴는 혁명이다. 죽음! 죽음은 육체의 파괴다. 그것은 영의 현실에서 관문이요 이동이다.  
「—그렇다. 죽음은 생의 변화다. 생의 혁명이다… 아니다. 아니다. 모두 아니다. 내세가 없다. 영혼이 없다」<sup>16)</sup>

이러한 고뇌속에서 그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죽명으로 받아들인다. 살기 위해 모든 도덕적, 지적독단주의를 내어던지고, 그리고 살고 싶은 인간적인 욕망에서 공식적인 전통과 정신을 거부하고 마적의 두목이란 수성적인 파감성(용감성)으로 죽음의 공포를 이겨낸다. 이와 반면에 다른 하나의 마적이 보여주고 있는 죽음의 상태를 환시하고 두려워 하는 모습은 인간이 지닌 생명에의 욕구를 나타내는 인간 본질의 다른면이다. 이렇게 볼 때 이 「사형수」는 인간을 極限狀況에 몰아넣고, 그 人間이 지닌 人間的인 意志와 수성적인 욕망의 단면을 형성화한 作品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曙雲文學의 이와 같은 特性은 다음과 같은 非情的詩世界와 同一한 次元에 서는 移民地帶의 우울한 르뽀르따아즈다.

12月의 北滿 눈도 안오고

오직 만물을 苛刻하는 黑龍江 말라빠진

바람에 헐벗은

이 작은 街城 네거리에

匪賊의 머리 두개 높이 내걸려 있나니

그 겨우론 얼굴은 말라 少年같이 작고

반쯤 뜯은 눈은

년 寒天에 모호히 저물은 朔北의 山河를 바라고 있도다.

너희 죽어 律의 處斷의 어찌함을 알았느뇨?

이는 四惡이 아니라

秩序를 보전하려면 人命도 鷄狗와 같을 수 있도다.

(유치환:「首」의 일절 1941)

16) 朴啓周:死刑囚(한국단편문학 A-22 文元閣 1974)pp. 242~243

이러한 非情과 冷酷의 非人間地帶가 이들 작품의 배경이다. 질서를 보전하려면 人命도 鷄狗와 같을 수 있는 섭리가 虛脫과 失神의 天地를 이루고 있는 移民地帶다. 그리고 벌써 이곳에는 따스한 피의 溫度도 사람의 生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도의 애정도 없다. 다만 막막한 不毛의 천지와 사람의 가슴에 맺힐 수 있는 슬픔이 응혈된 허탈과 失神의 세계다.

이러한 허무와 漠漠한 법도아래서 人間의 운명에 대한 曖雲의 통찰이 일정한 리얼리즘적 문맥을 이루고 있다. 이것은 그가 체험한 虚脫과 失神의 狀況이 그 자신의 비정과 의지와 맞설으로써 얹어진 귀결점이다. 먼 寒天에 肅北의 山河가 저물고 있는 변경지대에서 「生命의 險刻함과 그 決意를 깨닫」은 青馬가 운명에 대한 달관으로써 페시티즘을 극복했다면, 曖雲의 그것은 이 移民地帶의 非情의 섭리를 天地와의 交感(「처녀지」)에서 얹어진 生命에의 의지로서 극복하고 있다. 그리하여 인간의 生命조화도 非情의 법칙에 의하여 다스려 짐을 확인하고 그 運命을 달관 하려 한다. 이것은 이 작품의 모두에 전제된 「죽음은 다른 생명의 허가에 지나지 않는다」「나는 죽지 않으므로 나는 죽는다」는 말에서 그 의도를 재차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기독교적 生命觀이 달관을 염두보다는 移民地帶의 非情世界를 감수한 작가의식이 더욱 깊은 문맥을 이루고 있다. 어둠의 인식으로 그의 목소리는 비통한 음조를 띠고 있고 새파랗게 절린 고통스런 표정이 황량한 대지를 바라보고 있다.

특히 사형장에 몰려든 거지 폐가 보여주는 극명한 필치는 주약한 인간성의 일면에 대한 적다라한 겸증으로 이것은 人間性 自體에 대한 진실한 애정과 신뢰가 없는 비정지에의 모친 인간의 생명의지의 표상으로 南石의 「새벽」이나 「圓覺村」 등의 文脈의 일면과도 접맥하고 있다. 이러한 인간에 대한 부정적인 성향은 만주란 타인간지대 日政下란 비정시대를 겸증하려는 작가의식의 소산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것은 그의 후기소설에 主題마로 나타나는 휴머니즘의 전초지대를 이룬다.

### (3) 極限狀況과 人間愛

박제주의 후기소설에 오면 기독교적 휴머니즘사상이 전 작품의 주제로 나타난다. 「순애보」는 그러한 성격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는 「死刑囚」같은 작품에 보이던 잔인한 야만적인 법도는 찾아볼 수 없다. 「肉票」는 朴啓周文學에 있어서 그의 후기문학의 주조가 되는 휴머니즘의 章을 여는 작품인데, 여기서도 移民地의 르뽀형식이 중심을 이

루면서 「作家의 手記」나 「滿洲紀行」을 쓴 島木建作이나, 「移民部落尋訪記」「農軍」등을 가지고 돌아오는 李·俊類와는 다른 移民地의 생리를 다루고 있다. 그렇다고 「哈爾濱」의 이국취미를 옮겨다 주는 李孝石이나 露人계집의 裸體葉書를 수입해 주는 李石薰의 작품(「하르빈」: 新世紀)류<sup>17)</sup>로 떨어지는 것도 아니다. 아직까지 작자의 강력한 보고욕, 다시 말해서 황량한 만주 대지에 산재한 한국이민의 비극의 근원을 비판 제시하면서, 非情의 아픔을 기독교적 휴머니즘으로 용해시키려 한다.

「肉票」의 줄거리를 요약하면 광산촌 재피거우(夾皮溝)를 주름잡는 강달귀는 정절과 미모를 갖춘 永春屋의 옥녀를 찾아하려고 안달이 난다. 그러나 옥녀에게는 이미 정부 성호가 있다. 어느날 영춘옥에서 강달귀는 옥녀를 끼고 앉아 술을 마시는 성호를 발견하고 두 눈이 뒤집힌다. 싸움은 예상을 뒤엎고 성호가 이겼으나 이때 마침 처들어온 마적들에게 이 두사람은 광산촌 사람들과 함께 인질이 되어 잡혀가게 된다. 마적들은 原生林에 이르렀을 때 끌고오던 광부들을 모두 돌려보내고, 양복을 입은 강달귀와 성호만을 광산주로 알고, 몸값 2,000원을 요구하는 편지를 가족들에게 보내라고 위협하면서 이들을 잡아둔다. 그러나, 떠돌이 이들에겐 아예 처자식도 집도 없기에 엉터리 주소로 편지를 띠우고, 불안스런 시간을 보내고 있던 중 강달귀는 포승을 벗고 탈출을 하게 된다. 그러나 성호를 연적으로 생각한 강달귀는 성호의 살려달라는 애원도 묵살하고 혼자 도망하고 만다. 그러나, 곧 보초의 종에 다리에 부상을 입고 다시 체포된다. 한편 성호는 마적들이 노략질을 하려간 틈을 타서 남은 마적 두 뉴을 떠려뛰고 나무에 묶여있는 강달귀를 업고 탈출하는데 성공한다. 그러나, 강달귀는 종도에서 극도의 離주립과 출혈로 죽을 지경이 되자 어서 자기를 죽이고 성호만 떠나라면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지난 일을 사과한다. 그러나, 성호는 「나는 善으로 惡을 갚을 수는 있으되 惡으로 惡을 갚을 수는 없다」고 대답하고 최선을 다해 보호하나 그는 「여보게, 자네 제피거우에 돌아가거든 강달귀의 육체는 죽었지만, 그의 속 사람만은 죄악에서 살아났더라고 전해주게」란 유언을 남기고 죽는다. 성호는 혼자 하루해가 맞도록 칼끝으로 땅을 파서 뒷날이 산중으로 들어오는 사람에게 마적의 무덤이 아닌것을 알리기 위해서 姜達歸之墓단비를 세우고 동포가 사는 이민부락을 향해 걸을 채촉한다.

17) 金·天: 秋收期의 作壇(文章 소화15년 11월 호) p. 144

이러한 이야기는 언듯 애정의 산각관계나, 성호가 보여주는 일견 지나친듯한 인간애로 인하여 리얼리티가 결여된듯 하지만 전면을 지배하는 보고문학적 성격, 즉 독자를 작품 인물과 완전히 밀착시켜 사건의 현장에 있다는 幻覺을 불러일으켜 이야기꾼의 존재를 느끼지 않게 하는 소위 人物小說的 性格은 독자를 설득시키는 효과적인 기술방법으로 성공을 거두고 있다.

한편 악을 악으로 갈지 않겠다는 기독교적 휴머니즘은 <힘으로써 힘을 除함이 먼 原始에서 이어온 畏의 法度>란(유치환:「首」)北滿 移民地의 倫理에 새로이 人倫의 법도를 세우려 한다. 툴스토이의 위대성이 제정려시아의 매말라가는 인간풍토에 기독교적 휴머니즘을 구현한 것이었다면 박제주의 이러한 면은 <秩序를 保全하려면 人命도 鷄狗와 같은> 지대를 기독교적 인간애로 法度를 세우려는 것은 그러한 시대에 있어서 가장 바람직한 散文文學의 성격인지 모른다. 박제주의 이러한 性向은 그가 일찌기 月刊 「예수」誌를 창간(1933)하고 同誌에 4년간 宗教論文 30여편을 발표했다<sup>18)</sup>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기독교적 사상을 좀더 구체적으로 대비해 보자.

A 「너를 죽이는 것은 성호가 아니라, 네 자신의 죄가 너를 죽이는 것이다, 죽은뒤에라도 성호에게 원한을 품을 까닭은 없을 것이다.」(同 p. 268)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가하는 죄니라:「로마서」7장 17절)

B 「나는 살아서 마적꾼을 탈출하게 되는것을 기뻐하는 것이아니라, 죄악 덩이 리였던 그 나를 탈출하여 새로운 나를 찾은 것을 기뻐하는 것일세. 이렇게 옛사람에게서 탈출시켜 새사람으로 다시 살게 한것은 전혀 자네의 사랑일세, 나는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 것도 지금 처음 알았고, 맛보기도 처음일세… 우체는 죽었지만 그의 속사람만은 죄악에서 살아났더라고…」(同 pp. 269~270)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곁사람은 부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고린도후서」4장 16절)

C 「선으로 악을 잡을수는 있으되 악으로 악을 잡을수는 없네.」(同 p. 268)  
(악에게 지지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로마서」12장 21절)

비단 이러한 성구를 들지 않더라도 上記 A, B, C의 地文이 모두 기독교적 사상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감정은 非基督教人이라도 금방 느낄 수 있다. 힘으로써 힘을 除하는 제국주의의 침략근성이 논리화된 풍통에서

18) 新韓國文學全集: (語文閣, 1976) 朴啓周年譜 참고

기독교적 복음주의를 제창하는 작가의식은 분명 식민지민을 구제하려는 인간애의 표시다. 이런 점은 그가 비록 신문소설이긴 하지만 나라 없는 한 인간의 생애를 다룬 「愛路歷程」(毎日新報 1941)에도 잘 나타난다. 간도에서 태어난 한 한국소년이 무지한 中國인 지주에게서 민족적 수모를 받고 한 외국인 神父를 따라 獨逸로 건너간다. 타국만리의 외로움도 이 국 처녀의 사랑도 거절하고 「春香傳」을 독일어로 번역하면서 오직 신앙심으로 살아가는 주인공은 나라의 상실을 자신의 아픔으로 받아들인다. 全三部曲 (제1부 受難의 記錄, 제2부 愛情無限, 제3부 浪漫의 세계) 된 이 장편은 2부가 총독부 검열에서 발표중지를 당했고(1943) 1부는 上記한 한 卍國民의 후에가 겪는 수난의 기록으로 대중문학의 한계를 넘어서는 기독교적 인간애가 문학적 주제로 상제되고 있다. 「殉愛譜」가 같은 기독교적 인간애를 주제로 하고 있으나, 그것은 기독교적 헌미니즘이 단순히 한 개별인의 순애행위로 끝난다는 점은 「愛路歷程」의 주인공이 민족에 대한 순교로 일생을 마친다는 면과 입장은 달리한다.

### (3) 哀傷的母性回歸

「處女地」가 인간애의 결망과 혼무가 굳어지는 시대를 대하면서 人間과 自然과의 관계라는 알레고리를 통하여 인간사회에 대한 절망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려 했다면 「어머니」('43)는 그러한 對社會의 作家意識이 1인칭 고백형식을 통해 비판되는 작품이다. 주지하듯이 1940년대 이후는 좌시즘의 대두와 日帝의 악랄한 戰時政策으로 우리 文學은 두꺼운 벽에 부딪치면서, 작가의식의 좌절이 文學一般의 현상으로 나타났다. 이런 文學의 이상 기류는 상업주의적 통속문학이란 異質地帶를 형성하면서 大衆文學이 이 時代의 文學을 代表하고 나오거나, 소위 순수문학계열로 지칭되던 몇몇의 작가나, 인간과 인간아닌 것과의 대화를 통해 인간사회에 대한 어두움을 상징화하려 했던 시기다. 적출한바와 같이 박계주의 「殉愛譜」가 그 전형적인 예가 되겠다. 이 작품은 1940년 한해 동안에 무려 15판을 내었고, 그후도 48판을 내는 장기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이것은 그의 청교도적인 청순하고 숭고한 러브스토리가 이 작가의 理想主義的 취향과 함께 기독교적 박애주의로 당시 대중의 고갈된 정신을 해료 했기 때문이다. 또 당시의 민족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낙동강변 수재민의 참상, 이민을 떠나는 북행열차의 풍경묘사, 금강산의 승경에 대한 지루함이만큼 장황한 자연묘사 등 식민지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이 또한 다수의 독서층을 사로잡았을 것이다.

「어머니」(원명 : 「乳房」)도 이러한 박계주의 文學的 性向의 일면을 가지고 있다. 우선 작품의 제목이 풍기는 인상이 극히 대중적이며, 그가 파악하고 있는 민족의식이 극히 평면적이고 상식적인 차원에 머물고 있는 점이 그것이다. 우선 作品의 梗概를 보자.

학도명 정태호는 홀어머니를 두고 강제 출정을 당한 농촌출신의 병정 갑인철과 연안전투에서 만나 친우가 되어 조국을 잃고 남의 나라의 전쟁터에 끌려오게 된 자신들을 슬퍼하게 된다. 정태호네는 자주 김군과 함께 일본인 부대장을 죽이고 달아나는 꿈을 꾼다. 그러던 중 김군은 태행산백 전투에서 부상을 당해 후송된다. 그 후 내가 면회를 갔을 때 그는 눈과 귀의 기능을 완전히 잃고 어머니를 찾고 있었다. 이때 그의 어머니가 면회를 와 아들과 만났으나, 아들은 어머니를 알아보지 못하고 계속 그의 어머니만 찾자 용한 짜를 생각해낸 그의 어머니가 젓을 꺼내어 입에 물리자 그는 자기의 어머니를 알아 보았다.

이 작품은 박계주가 그의 通俗小說(「殉愛譜」)의 뼈를 벗고 純文學側으로 進出하려는 意圖를 보여준 것<sup>19)</sup>이라하나 소재처리가 다소 대중 취향에 영합하려는 기색이 보인다. 그러나 導入額字와 終結額字를 갖춘 소위 額字小說로 1인칭으로 서술되는 내부이야기는 주인공 정태호의 萝中譚의 형태가 삽입되면서 祖國愛란 作品의 主題가 민족의식을 바탕으로 서술되면서 일면 저항적 문맥을 띠고 있다. 가령 다음과 같은 地文들을 보자.

- 제정 일본의 학정자의 채찍에 뭇이겨 지원명이라는 미명밑에서 이를 갈며 출정했던 학도명 정태호군…
- 우리는 조국은 가지지 못한 슬픔에 울었읍니다. 그보다도 우리의 조국을 빼앗은 구적 일본을 위해 총을 들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총부리가 향한 곳에는 팔로군에 가담하여 조선의 광복을 위해 싸우는 조선 의용군이 있다는것…
- 어먼 날에는 김군과 나는 선봉에서서 지휘하며 돌격하는 우리전 일본 부대장을 뒤에서 쏘아 넘어뜨리고…
- 누구나 미간을 찌푸리도록 불쾌해하고 진절머리가 나는 그소위 창씨(創氏)! 그러한 웨식의 성명을…

이 作品이 쓰여진 연대는 지금까지 간행된 각종 문학전집류에는 1943

19) 鮑哲 : 朝鮮新文學思潮史(現代篇)(白楊堂 1948)p. 335

년<sup>20)</sup>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文脈은 이 作品의 도처에 나타난다. 그러나 작품의 전체적인 구조에서 볼 때 이 작품에 나타나고 있는 민족의식이 민족적 긴장감이 맵도는 구조적인 현실로 집약되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주인공의 행위에서 집단의식의 반영(wieder spiegelung)을 보나 그것이 집단의식의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 즉 작품의 구조와 집단의식 사이의 대응관계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곧 주인공 정태호가 농민출신인 전우 김인철과 민족의 독립이란 역사적 과업에 분명 역행되는 日本軍의 한 병졸로 남아있기를 거부하면서도 作品에 나타나는 탈출행위는 豐中譚으로 처리되고만 결과 소위 同族性(Theorie des Homologies)이 결여되고 말았다. 한편 정태호가 김인철에게 보내는 관심은 민족의 공동운명체적인 사랑의 連鎖로 승화시키지 못하고, 개인적인 사랑의 부음으로만 미화시키려 함으로써 문학작품과 집단의식 사이의 轉移가 이루어지지 않고 말았다. 이전점은 「母土」의 주인공 인준의 경우도同一하다.

따라서 전 작품에 두영된 작가의 저항의식이 강렬한 양태를 보여주면서도 그것이 민족적 잠재력과 긴장감이 감도는 구조적인 현실로 파악하지 못하고, 표면적이고 감상적인 문장으로 처리되고 말았다. 그렇지만 비록 단편적이고 소박하나마 이 소설에 흐르고 있는 휴머니티는 민족적 박애주의에 바탕을 둔 진전한 작품을 형성하여 전술한 「순애보」가 지닌 기독교적 인간주의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특히 다음과 같은 終結語字의 地文(A)이 보여주고 있는 면이나 인용대문(B)에 나타나는 점이 그렇다.

(A) 끝으로 후 이것을 쓸데없는 군소릴지는 몰라도— 그때의 내 감정에 있어서 김군을 따라 불시에 나도 부른 어머니는 김군의 어머니나 또는 둘아 가신 내 어머니를 가르키는 것이기도 했었지만, 그 보다도 「조국 조선！」이 있다는 것이 거짓없는 고백이요, 아직도 내 흥우에서 지워버릴 수 없는 한 개의 영원한 액스타틱한 환영이었습니다.

(B) 우리 어머니는 언제 오신대요? 아직 두 전보가 없어요? 어서 오시라고 전 분 처줘요. 어서 죽기 전에 한번 만나게 해줘요.. 이세요」  
이 애원을 듣는 어머니는 미친듯이  
「네다 내가 왔다. 여기 이것이 네 어미 아니나 응? 얘 인철아! 내가 네 어

20) 韓國文學全集 23(民衆書館: 1968) 박제주 연보  
新韓國文學全集 19(語文閣: 1975) 박제주 연보  
백철: 朝鮮韓文新思潮史(現代篇) p. 335 등 참조

미다!」

어쩔줄을 모르며 울음섞인 음성으로 말했으나 아들은 여전히 어머니를 몰라 보고만 있었습니다. 손을 잡아주어도 뺨을 만져 주어도 별짓 다해도 아무 효과가 없었읍니다. 어머니만이 아니라 둘러선 우리들도 어찌 할바를 모르고 같은 안타까움과 같은 초조와 같은 담담함에 가슴을 설레이게 하였을 것입니다.」

(A)에서 이 작가가 作品의 제목을 「어머니」로 고친 의도, 곧 개별적自我를 集團的 自我로 부조하려는 의도를 알 수 있고, (B)에서는 (A)에서 시도하는 그러한 작가의 의도가(주제) 실패한 요인, 다시 말해서 상식적이고도 안이한 장면처리, 그리고 타성화된 윤리성과 교훈성을 발견한다. 따라서 이 작가는 진천한 작품과 훌륭한 주제의식(작가의식)을 가지고 있으나, 그러한 장점이 구조적으로 형상화되지 못하고 주제와 부수된 디테일묘사에 있어서 꾀리를 드러내고 있는 면이 朴啓周文學의 한계점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 작품의 전반부에 흐르고 있는 民족의식과 비판의식, 그리고, 소박하지만 주인공 정태호가 異國의 戰地에서 동족인 김인철에게 보내는 애정이 진천한 작가의식이란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수 있다. 그러나 더욱 관심을 두어야 할것은 이러한 작가의 비판정신이다.

### III. 결 론

한국의 近代文學을 再整理 再評價하는 일은 당면한 우리文學史의 課題だ. 이와같은 文學史의 改編 複完에 있어 거의 看過했거나 輕視해온 日帝 統治不의 移民地帶의 文學은 소위 暗黑期로 命名되는 1940年代의 文學을 재평가 하는데 새로운 좌표로 나타났다. 특히 '40년대는 日帝가 우리 말을 말살하고 文學藝術까지 日文에 의한 親日御用文學으로 강요함으로써 많은 작가가 변절하고 그의 남은 文人們도 日政下의 生活과 民族意識사이에 야기되는 二律背反感이 일어, 이른바 人生派 田園派 등 폐배주의적 文學地帶로 돌아가거나 絶筆했다. 그러나 移民地帶一민주, 간도동지의 200만의 移住農民을 다룬 南石(安壽吉)이나 曙雲(朴啓周)의 前期文學은 朝鮮臨時保安令(1941)이나 出版事業令(1943)등과는 無關한 文學의 양상을 나타낸다.

朴啓周의 前期文學은 이러한 입장에 선 移民文學으로 이상 논술해 온 사실에서 다음과 같이 그 문학적 특성을 요약할 수 있다.

① 磬雲은 本國文學이 심한 절멸로 인해 作品發表가 중지되거나 親日御用文學으로 변이되면 1940년대 初에 「處女地」('41) 「死刑囚」('42) 「肉票」('43) 「어머니」('43) 등의 作品에서 移民地帶(만주, 간도) 한국인의 生活을 문제삼음으로써 安壽吉 등의 移民文學과 함께 종래 이時期를 暗黑期即 無文學時代로 풀려있던 우리의 文學史에 새로운 座標를 제시한다.

② 磬雲의 前期文學은 그의 後期文學과는 다른 在瀟移住民의 生活現場을 문제삼는 本格文學이다. 특히 「處女地」는 移住民의 生活現場, 곧 新開地로 밀려난 뿌리뽑힌 우리민족이 다시 밀려다니야 하는 비극적 삶이一回의 現場性을 벗어나 民族現實의 한 축도를 띠고 重層의 意味로 象徵化되면서 민족의 개척 의지가 현실비판적 문맥으로 표장화 되고 있다.

③ 「死刑囚」는 移民地帶의 非人間主義를 고발한다. 이것은 논·평설적인 주제의 처리로 代理的 삶을 호흡할 수 있는 小說的 기능을 발휘함으로써 時代의 문제성에 주의를 집중시키려는 다른 移民文學과 접壤하고 있다. 그리고, 「肉票」는 그의 후기소설의 主題마를 이루는 기독교적 휴머니즘의 전단계를 예보하는 作品이다.

④ 日政下의 어두움을 적합적 문맥으로 표출하면서 비상시대의 非情的狀況을 哀傷的 母性愛即 人情主義로 극복하려 한다(「어머니」). 그러나, 유랑이민의 個人的 體驗이 集團意識과 對應關係를 이루지 못함으로써 作品의 한계점을 노정하고 말았다.

(謂文에 대한 논의는 移民文學의 새로운 論究의 과제가 된다. 이에 대해서는 稿를 달리함)